

무성서원 역사적 가치 알린다

문화재 활용사업단·모현회
‘무성서원, 예에서 놀다’ 등
서원 활용 문화 프로그램 소개



정읍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의 활용과 관리 방안 등 후속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무성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단과 모현회가 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체로운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정읍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의 활용과 관리 방안 등 후속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시는 유네스코의 등재 기준을 준수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서원의 본래 모습과 가치를 보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인지도와 활용도는 물론 서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무성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단 안성덕 단장과 모현회 이흥재 부원장은 무성서원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성서원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대체로운 사업을 소개했다. 안성덕 단장과 모현회 이흥재 부원장은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문정신 함양과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하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향교와 서원 본연의 교육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첫 프로그램인 '풍류방에서 파어나는 풍류(風流)와 도(道)'는 5회의 강연과 2회의 국악 연주를 진행한다. 강연은 인문학 강사를 초빙한 '최치원과 정국인 등 무성서원 배향 인물로 알아보는 풍류와 도'이며, 공연은 (사)수재전 연주단과 전라정가·악회의 연주다. 또, 초·중·고·대학생과 유학생,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인 '무성서원, 예(禮)에서 놀다'가

지역 이장단 회의 등 다양한 경로의 홍보를 통해, 박제된 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문화재'로 무성서원의 가치를 공유토록 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을 온전하게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보존 관리대책과 정읍지역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높여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안성덕 단장은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전문인력의 참여로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등 문화유산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익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본격화

시, 함열 향교에서 인문학 강좌부터 시작 11월까지 진행

익산시는 지난 해 말 문화재청 공모 사업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백제 왕도 1번지'인

함열향교의 3락(樂)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에 내



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문정신 함양,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하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이다. 이번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백제왕도 1번지' 익산, 함열향교의 3락(三樂)의 주제로 ▲1樂, 노는 즐거움, ▲2樂, 배우는 즐거움 ▲3樂, 함께하는 즐거움 등 3개 테마로 진행된다. 유생복을 입고 함열 향교를 탐방하며 전통예절을 체험하는 '과거와 친해진 유생', 함열향교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공동체 품에 안긴 유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 추진하며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인문학 학교'는 함열향교에서 전문가에게 배우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으로 29일부터 '공감대화·갈등 전환' '동양 고전을 통해서 본 소통의 의미와 방법' 등 5개 과정을 만나 볼 수 있다. /익산=장영희 기자

‘파벌과 당쟁, 개혁과 저항인가?’

순창군립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개강
전북대 윤상원·황갑연·이용재 교수 초청

순창군립도서관이 6월 2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2020년도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주제는 '파벌과 당쟁, 모략과 음모인가? 개혁과 저항인가?'이며, 강사는 전북대학교 윤상원, 황갑연, 이용재 교수가 진행한다. 순창군립도서관의 인문독서 아카데미 핵심 아젠다는 21세기 시대정신의 주제인 소통이다. '공통'과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는 중국과 조선 그리고 서양의 당쟁사(黨爭史)를 통해 당쟁이라는 고착화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정치발전의 한 '메커니즘'으로서 '개혁'과 '저

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민들에게 다름과 소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좌의 핵심은 '볼레랑스'다. 지역민들이 갈등을 뛰어넘어 소통과 관용정신으로 상생의 삶을 키워가는 인문정신의 역량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동서양과 고금을 교차한 수준 높은 강의"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문독서 아카데미 강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진행된다. 참석자에게는 기증도서를 선물로 증정하며, 관련 내용은 전화(650-5678) 또는 순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28일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 ㈜김스미디어(드라마 16부작)와 ㈜눈누나(웹드라마 9부작), ㈜케이퍼커뮤니케이션(다큐 2부작), ㈜전주방송(다큐 단편)과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16부작 태권도 드라마’ 제작

태권도진흥재단, 김스미디어와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추진 협약

무주 태권도진흥재단이 영상으로 태권도를 국내외에 소개하기 위해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8일 운영센터에서 (주)김스미디어(드라마 16부작)와 (주)눈누나(웹드라마 9부작), (주)케이퍼커뮤니케이션(다큐 2부작), (주)전주방송(다큐 단편)과 '2020 태권도 소재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태권도재단은 태권도 소재 영상콘텐츠 제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6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태권도 소재 드라마와 다큐, 웹드라마 등을 제작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업들은 태권도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긍정적이면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한다. 제작된 영상은 국내 TV채널(드라마, 다큐) 및 웹TV 채널(웹드라마)을 통해 연말에 방송된다. 재단 김용 사업본부장은 "태권도가 스포츠와 무예로서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의 한 장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뉴미디어 및 플랫폼을 통해 해외까지 확장 가능한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